

# 2021년도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추모합니다.

우리는 술한 시련 속에서도 곳곳이 자긍심을 지켜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 분단된 조국의 전쟁에서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엄혹한 독재의 시절에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시대는 다를지라도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켜 왔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선열들께서 흘리신 피와 땀,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민주주의는, 가장 빛나는 시기에 자신의 삶 전부를 조국에 바치신 선열들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신뢰와 협력,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다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선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끝까지 예우하겠습니다. 고귀한 공헌이 어제의 역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역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은 세계의 어느 누구보다 더 모범적으로 방역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남기는 한걸음 한걸음이 후손들에게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선열들이 보여주신 그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의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아주십시오.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넘어서면, 더 따뜻한 경제,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확고한 평화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고귀한 젊음과 생명을 바치신 모든 분을 추모하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

국무총리 **김부겸**